

인간 존중



아주대학교 홍보대사

lamAjou는 | 아주대 타운(<http://town.cyworld.com/ajou>) 운영, 각종 온라인 및 오프라인 이벤트 진행, 학교 홍보 UCC 및 웹진 제작, 학교행사 지원, 캠퍼스투어 진행, 전국 대학생 홍보대사 연합 활동 참여, 홍보비디오 및 홍보책자 모델 활동 등 다양한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자기 경쟁력을 높이고 아주대학교의 대표 얼굴로 대내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선발은 서류전형 및 면접으로 이루어집니다. 문의 : 홍보팀 031-219-2919



Special Theme

DYNAMIC TOMORROW

아주! 소통의 창을 활짝 열다

우리가 사람과 사회, 세계와 소통하는 것은 나를 포함한 '존재'에게 마음을 열었기 때문이다. 마음의 창을 활짝 열고, 눈높이를 맞추는 순간, 우리는 通할 준비가 된 것이다.

나와 내가, 나와 이웃이, 나와 세상, 나와 세계, 나와 미래, 그리고 나와 또 무엇이 通할 준비가 된 것이다.

아주라는 소통의 창은 언제나 활짝 열려있다. 아주는 소통을 통해 새로움과 만난다. 아주는 소통을 통해 세상을 배운다.



A

06 'Who am I?', 나를 뒤돌아 보다
조병주 교수 + 경력설계와 진로개발

18 Ajou Scenery
신입생집중교육

08 관심과 배려, 서로를 마주보다
이규미 교수 + 교수학습지원센터

20 Ajou Fresh Blood
응용화학생명공학부 김문석 신입교수

10 봉사, 세상을 향해 미소 짓다
김경우 학생 + 사회봉사단

22 Ajou DNA
건축학부 98학번 전덕호(허ček) 동문

12 아주, 세계와 이야기를 나누다
이동렬 팀장 + 국제협력팀

24 Ajou Spirit
만화동아리 고슴도치

14 융합, 미래형 인재를 키우다
오규환 교수 + 미디어학부

26 Ajou Partner
평택시가 말하는 ITS대학원

16 아주는 지금 소통 중

28 Ajou Who's Who
칭찬 릴레이, 참 잘했어요

30 Ajou Energy
교내 무료 어학강좌

32 Ajou NEWS

35 Ajou Manner
공과대학 예절캠페인

DYNAMIC TOMORR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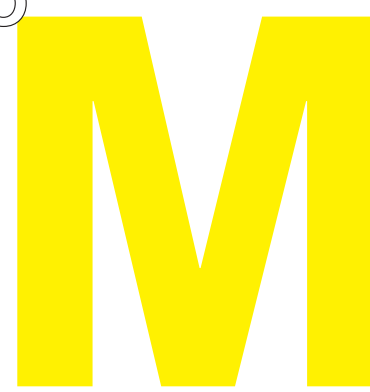
인간 존중

Dynamic Tomorrow는 역동적인 미래를 열어가는 아주대학교를 표현한 아주대학교 캐치프레이즈에서 따온 것입니다. 부제 "인간존중", "실사구시", "세계일가"는 아주대학교의 학교이념으로 인간존중에는 아주대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이야기, 실사구시에는 아주대학교 연구에 관한 이야기, 세계일가에는 아주대학교의 국제화에 관한 이야기가 실립니다.

Dynamic Tomorrow - 인간존중
2009년 9월호(통권15호)

발행일 _ 2009년 9월 1일
발행인 _ 아주대학교 총장
편집인 _ 아주대학교 대외협력처장
발행처 _ 아주대학교 홍보팀 031-219-2917-9
기획, 편집 및 디자인 _ 플러스8스튜디오스 02-542-0810
사진 _ Bul Studio
그림 _ 오혜진
출력 및 인쇄 _ 미디어체인 02-2277-7364

Dynamic Tomorrow _ 인간존중은 아주대학교 소식지로 배포됩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아주대학교 홍보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webzine.ajou.ac.kr)을 통해서도 Dynamic Tomorrow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疏通

Special Theme

사람은 소통을 통해 세상과 만나고 성장해 나간다. 스스로의 정체성을 깨닫고, 타인과 교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해와 양보를 배운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회가 이야기를 나누고 원활하게 소통할 때 비로소 세상은 바뀌게 된다.

아주는 곳곳에 소통을 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나'와의 대면을 통해 스스로의 진로와 미래를 설계하는 수업,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진정한 교육을 이끄는 기관, 사랑·희망을 이웃과 나누는 사람들, 캠퍼스 내에서 세계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공간, 학문간 융합을 통한 미래를 키우는 교육 등 소통의 종류와 형태도 다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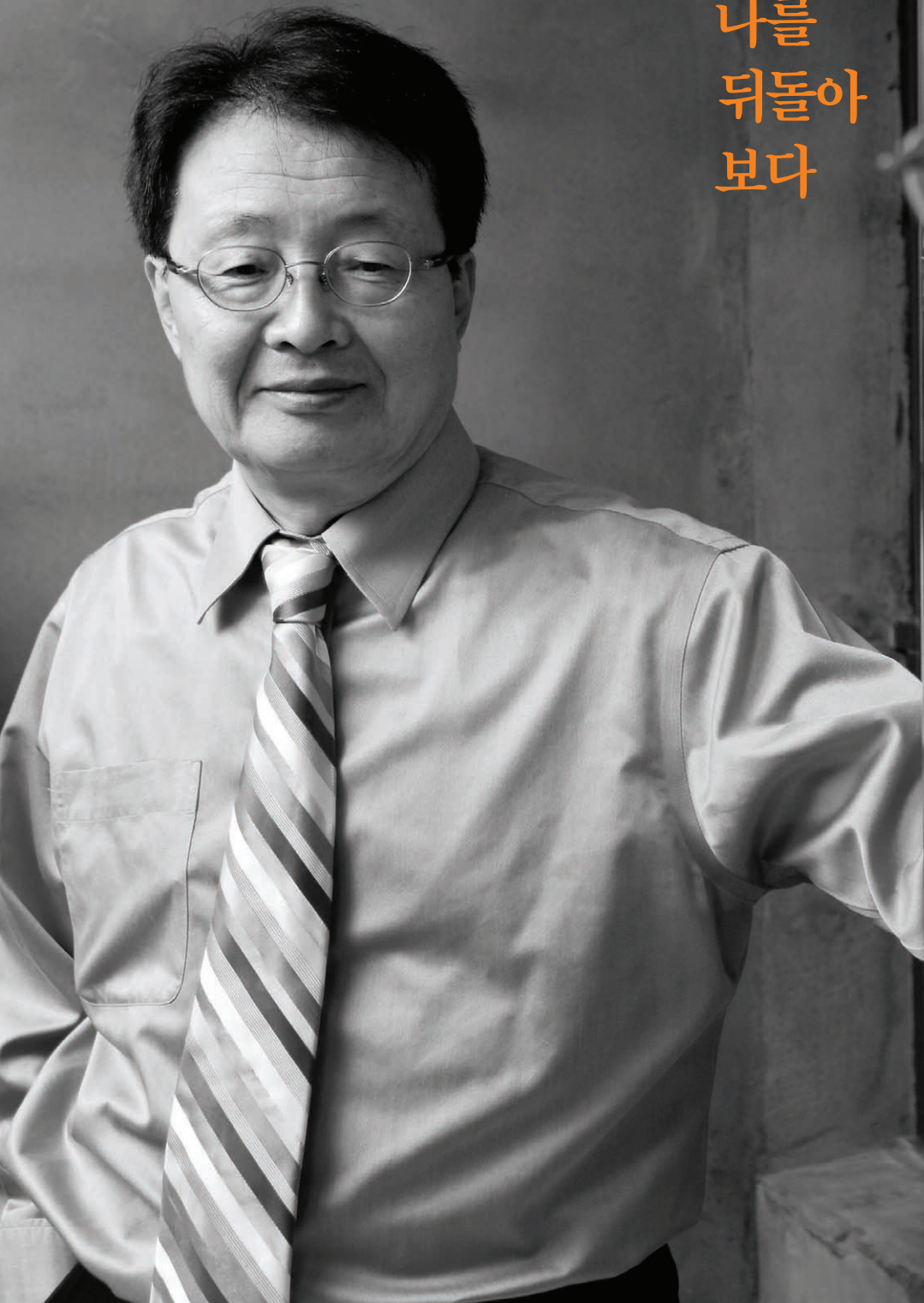
자연스럽게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주의 면면을 살펴보자.



모든 소통의 출발점은 '나'이다. 나를 알고, 나와 교감할 때 비로소 타인과 소통할 준비가 된 것이다. 아주에는 '나'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있다. 조병주 교수가 진행하는 <경력설계와 진로개발> 수업이 바로 그것. 이 수업이 매학기 수강신청 30초 만에 마감되며 인기를 독차지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소통 부재'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자신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조병주 교수 + 경력설계와 진로개발 ● 'Who am I?'

나를
뒤돌아
보다



疏通

조병주 교수의 <경력설계와 진로개발> 수업 첫 시간은 '이 수업을 왜 들으러 왔느냐'는 질문으로 시작된다. 왜 학교에 다니며 왜 공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없이 자신의 삶을 수동적으로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 이 질문은 자기 깨달음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뜨게 만든다.

"첫 질문을 받으면 학생들은 이제까지의 배움과 삶이 전복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죠.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기에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일깨워주는 시간이랄 수 있습니다."

조병주 교수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인성 시간'을 체험해보라고 이야기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중간고사가 끝난 뒤 사흘 정도 휴대전화를 완전히 꺼놓고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는 일부터 시작할 것

을 권한다. 자신이 졸업한 초·

중·고교도 가보고, 가족 열

범도 뒤져보며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

라는 것이다. 조 교수는 이

런 시간이야말로 자신이 정

말로 원하는 것, 잘할 수 있

는 일을 찾아낼 수 있는 계기

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그리

고 이렇게 스스로 찾아낸 자신의

강점을 앞으로의 진로와 취업에 활

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의 역할

이자 <경력설계와 진로개발> 수업의 포인트다.

"요즘 학생들은 공부를 참 많이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내가 빠진 공부'예요. 그러다보니 공부한 것들을 자신의 삶에 제대로 응용할 줄 모르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자신이 어디에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갈 것인지, 자신의 능력과 경제를 미리 스케줄링해 보라고 합니다."

조병주 교수가 <경력설계와 진로개발>을 개설한 것은 2000년 가을. 본래 창업분야에 대한 강의를 했던 그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취업과 진로문제로 고민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업 경영'에 앞서 '개인 경영'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때 1년 전 읽었던 구직과 경력 전환에 대한 실용적인 지식을 담은 『당신의 파라슈트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

저는 강압적인 부모님 때문에 제 자신이 잘 하는 것,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자신과 소통하기 보단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것들을 소화해 내기 바빴죠. 그러다 아주대에 진학하던 해 처음 개설된 <경력설계와 진로개발>을 듣게 되었습니다. 수업 중 '넌 어디에서 살고 싶으냐?'라는 질문 하나가 저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태어나고 자란 곳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저는 세상은 넓고 살 수 있는 곳은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또한 '사람은 누구나 태어난 이유가 있다'는 교수님의 말씀은 저의 존재 가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의 기대를 떠나 제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었고, 제가 잘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어린아이들을 좋아했던 옛날의 제 모습을 떠올리며 아이들과 함께 해아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특수교육학을 공부했고, 현재는 특수교사로 장애아동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회과학부 00학번 정희정
 (現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 특수교사)

무슨 색입니까?』라는 책이 떠올랐다. 그는 직접 미국으로 건너가 저자 리처드 N. 볼스의 '워크숍'에 참석하며 <경력설계와 진로개발>의 토대를 마련, 2000년부터 아주대에서 강의를 시작했다.

성장방향의 핵심 포인트를 찾아서 본인들이 스스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수업은 강의를 듣고 취업에 성공한 학생들 사이에서 '신기하게 교수님 말씀을 따르니 졸졸이 합격한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인기가 폭발, '졸업 필수과목'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지금까지 4,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거쳐 갔다.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취업 기술을 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능력을 찾아내고 그것을 자신의 마케팅 포인트로 키울 수 있도록 리드해주는 거죠. 스스로를 고용시킬 수 있는 힘, 바로 취업력을 길러주는 겁니다."

이 수업은 학생들이 스스로의 삶에 적용시킬 때 비로소 빛을 발한다. 수원에서 인천까지 도로를 따라 밤새 걸으며 자신을 되돌아본 여학생, 휴대폰을 끄고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 모교를 찾아가 자신의 장점을 찾아낸 학생 등 실제로 자신과의 소통을 통해 스스로 답을 찾아 성공한 사례가 많다. <경력설계와 진로개발>은 강의실 안에서 이론으로 끝나는 수업이 아니라, 자신에게 계속 질문을 함으로써 주체적으로 생을 설계해 나가도록 만드는 계기가 된다. ☺

학생들에게 좋은 교수가 되는 첫째 조건은 무엇일까? 철저한 강의 준비, 과목에 대한 열정, 학생들과의 열린 사고... 모두 맞는 말이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학생과의 소통'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최근 대학가에는 효과적인 교수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생과의 소통능력이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교수와 학생이 학문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자세와 교수·학생 간 가장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찾아주는 곳, 교수학습지원센터. 그리고 이규미 센터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규미 교수 + 교수학습지원센터 ● **관심과 배려, 서로를 마주보다**



疏通

“교수는 학생과 조화를 이루며 학습을 리드해 나가야 합니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이나 방법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과 태도, 즉 '학생과의 소통'입니다. '미국 최고의 교수는 어떻게 가르치는가?'의 저자 Ken Bain 교수 역시 교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들과의 소통이라고 강조한 바 있어요. 교수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 그 지식을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 때 비로소 교수의 목적이 달성되기 때문이죠. 그러기 위해서 교수는 학생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학생들과 마주하고, 눈을 맞추고, 이름을 불러주는 것에서부터 이미 소통은 시작됩니다. 거기에 다양한 성격과 가치관, 관점을 이해하고 조화를 이뤄나감으로써 계속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렇게 해도 전달하고자 하는 100% 모두를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없습니다. 교수들의 교수법도, 학생들의 학습법도 제각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개인에게 맞는 교수법과 학습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교수학습지원센터입니다.”



교사들 대부분이 당시의 저와 같은 생각일거예요. 수업을 마치고 자신의 학생들을 더 이해하고,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었다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결국 학생과의 소통은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서 출발하는 법이죠. 학생들과 제대로 소통할 수 있는 교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 그런 교수가 되고 싶고요.”

강의뿐만 아니라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업무 역시 이규미 교수에게는 소중한 경험이다.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에서 이번 여름방학에 진행한 '1박2일 교수법 집중 워크숍'은 참여한 교수들 뿐 아니라 워크숍을 진행했던 저 역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신입교수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교수 등 다양한 전공과 연령대의 교수들이 함께해 더욱 의미가 있었죠. 많은 교수들과 함께 교수법에 대해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결국은 학생과의 소통이 최고의 교수법이라는 결론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시작으로 교수들의 마음 가짐이 차츰 바뀌면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까지도 바뀌어 가지 않을까요? 교수들끼리의 소통이 나아가 학생들과의 소통의 길을 연 것이니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물었다. “아직은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지만 이렇게 아주대의 구성원 하나하나가 교수법과 학습법에 새롭게 눈을 뜨는 모습을 보면서 센터에 대한 자부심과 무한한 책임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교수학습지원센터는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진행함으로써 교수와 학습자 간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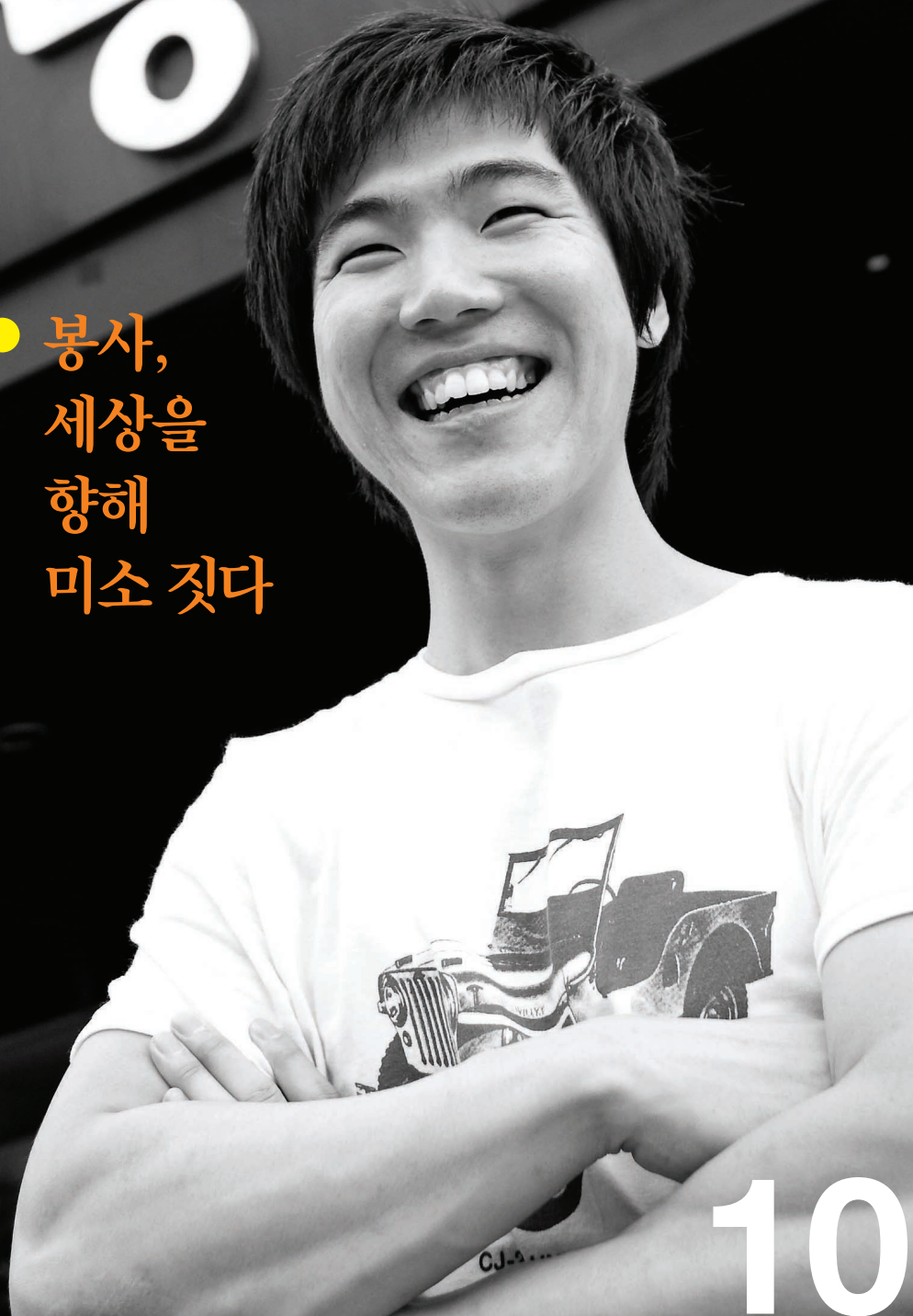
지난 3월부터 교수학습지원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규미 교수는 교육대학원에서 현직 및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상담심리를 가르치며 오랜 시간 학생들과의 소통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다.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후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했죠. 지금 교육대학원에서 상담심리 수업을 듣는 현직

교수학습지원센터는 2005년에 설립되었다. 교수들에게는 교수법 향상을 통한 수업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학생들에게는 대학교육에 맞는 학습능력 및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수법 워크숍, PPT·UCC·web2.0프로그램의 활용법, 외부교수법 프로그램 참가 등의 다양한 교수지원 프로그램과 신입생 집중 학습법, 창의성 교육, 보고서 및 논문작성법, 각종 매체활용법 등의 학습지원 프로그램, 각종 블렌디드러닝, 고품질의 이러닝 콘텐츠 제작 등의 이러닝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주를 대표하는 봉사 동아리인 사회봉사단은 '뜻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열린 곳'이다. 봉사를 통해 세상을 만나고 사회와 소통하고 있는 사회봉사단원들은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게 미소를 건네는 작은 일부터 시작한다. 이 작은 미소는 점차 커다란 웃음으로 번져 세상의 표정을 바꿔나간다. 봉사 활동 후에는 감사와 행복, 소중한 인연 등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는 김경우 회장과 사회봉사단, 그들 속에서 세상과 소통하고 있는 아주의 모습을 찾아본다.

김경우 학생 + 사회봉사단

● 봉사, 세상을 향해 미소 짓다



疏通

사회봉사단은 한 달에 두 번, 보호 이동시설인 '아급의 집' 과 중증장애인 보호시설 '한사랑마을' 을 방문해 식사를 도우며 함께 산책하고 청소를 하는 등 꾸준한 봉사 활동을 해오고 있다.

"저희와 함께 산책을 하고 식사를 하면서 즐거워하는 장애우들을 보며 저희에게 주어진 건강한 육체와 정신에 대하여 감사하게 됩니다. 또 눈을 맞추고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는 그들의 모습에서 사랑과 감사를 배우게 되죠."

사회봉사단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쌀배달 봉사' 도 진행한다. 아주대 교직원들의 모금액으로 우만복지회관, 위스타트센터와 연계해 지역 소년소녀 가정들에게 쌀 10kg씩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내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봉사활동 뿐만 아니라 학교 밖의 기업·단체와도 함께하며 활동영역을 차츰 넓혀나가고 있다. 현재는 한 학기에 두 번 삼성생명과 함께 삼성생명에서 지원해준 차량과 지원금으로 자매마을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처음에 호기심과 막연한 연민의 감정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했던 친구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자주 보게 돼요. 장애우들과 정이 쌓이면서 개인적으로 방문하는 친구도 있고, 부모님을 통해 후원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다보니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후에도 봉사활동을 계속하는 선배들도 많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봉사단의 활동영역을 좀 더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주대 사회봉사단의 특징 중 하나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 싸이월드 클럽(<http://club.cyworld.com/avsc>)에 앞으로의 활동을 미리 공개함으로써 참가의사만 있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뜻이 있지만 선뜻 용기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모두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 그렇지 한두 번의 만남으로도 금방 친구가 되죠. 사회봉사단은 다양한 전공, 다양



한 나이대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말 그대로 아주의 소통의 장입니다. 이곳에서의 인연은 학교 생활에서도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요. 함께 땀 흘리고 서로가 소중한 것을 나누면서 만들어진 관계이기 때문이죠."



"저희는 봉사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번 우리와는 조금 다른 친구들을 사귀다고 생각해요. 혼자 밥을 먹을 수 없고, 혼자 걸을 수는 없지만 눈을 마주치고 손을 잡고 불을 쓰다듬으며 우리는 서로를 알아갑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 달에 한번 만나는 친구가 되는 거죠."

우리들의 웃음을 더 큰 웃음으로 돌려주는 이웃들과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깨끗해지는 해맑은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곳. 그리고 사랑, 희망, 감사, 배려를 함께 느끼며 커가는 아주인들이 모인 곳. 세상을 배우고 사회와 소통하고 싶은 아주인에게 사회봉사단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다. ☺



성수란(경영학부 04)

해비타트나 지역봉사활동을 하던 차에 학교 봉사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시작했어요. 봉사를 통해 베푸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달아요. 소외된 이웃들의 삶에 소소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즐겁습니다.

이현정(경영학부 08)

학부생활, 영자신문사 기자생활을 하면서 봉사활동을 생각하기가 힘들 거든요. 그런데 사회봉사단은 자신이 갈 수 있을 때 언제든지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요. 봉사활동을 통해 남을 배려할 줄 알게 되었고, 정말 행복한 사람이 바로 저 자신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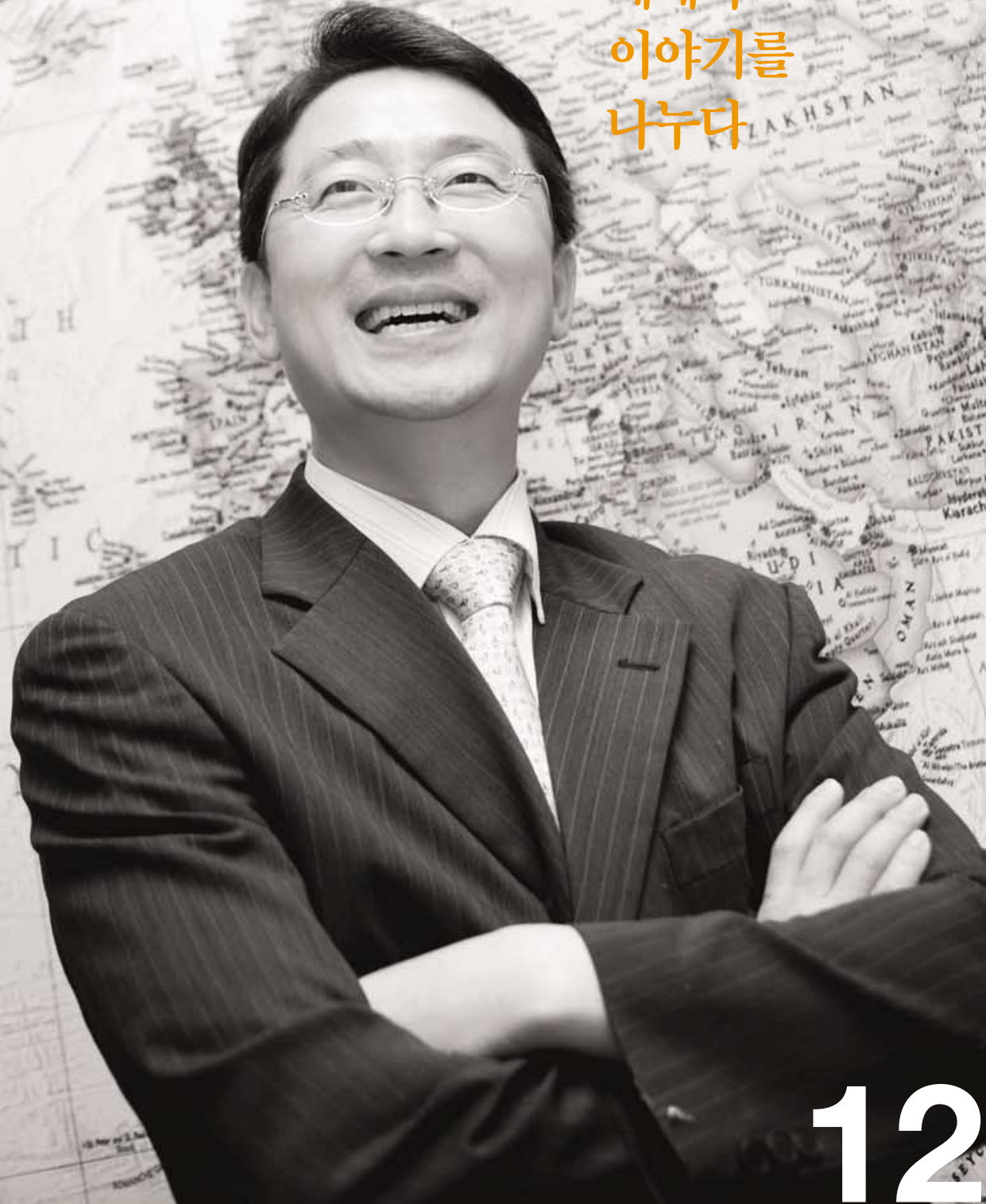
윤지애(사회과학부 05)

1년 휴학을 결정하는 시점에 사회봉사단을 만났어요. 새로운 경험을 기대했던 저에게 장애아동들을 접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힘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꾸준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팔다리를 주무르고 눈을 마주치며 제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어요. 졸업 후에도 계속 사회봉사단에 참여할 생각입니다.

매학기 시작과 함께 한국 땅을 밟는 외국인 학생, 그들의 든든한 도우미 프렌즈클럽, 그리고 외국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당당하게 아주를 빛내고 있는 아 주인. 이처럼 아주에서 세계와의 소통은 언제나 현재진행형이다. 캠퍼스 곳곳에서 외국 학생들을 만날 수 있으며 제3세계의 문화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곳, 아주대학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아주 속의 작은 세계, 국제협력팀이 있기 때문이다. 이동렬 팀장과 함께 세계와 소통하는 아주를 만나보자.

이동렬 팀장 + 국제협력팀

아주, 세계와 이야기를 나누다



疏通

“마케팅 원론 강의 시작 5분전. 강의실은 학생들의 이야기 소리로 시끌벅적하다.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 중국어, 스웨덴어, 독일, 불어도 모자라 일본어, 중국어, 아랍어 등이 뒤섞여 마치 인종 전시장을 방불케 한다. 미국, 중국 친구와 자연스럽게 토론이 이뤄지고, 아프리카 친구와 반갑게 인사를 나눈다. 드디어 교수님이 들어온다. 수업은 영어로 진행된다. 20년, 30년 후의 모습이 아니다. 아주대학교의 현재 모습이다. 매 학기 500명이 넘는 외국인 학생들과 같은 캠퍼스에서 생활하는 아 주인에게 이들은 그저 함께 공부하는 클래스메이트일 뿐 더 이상 신기한 존재도 동경의 대상도 아니다.

아주대를 찾아오는 외국인 학생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을

통해 구전 마케팅이 잘 이루어진 결과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국제협력팀이 자랑하는 아주대만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다.

“우리학교 교환학생 제도의 원칙은 1대1 교환입니다. 우리학교 학생 1명이 미국 미시간 대학으로 파견되었다면 미시간대학 학생 1명이 우리학교로 와서 공부를 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다보니 교환학생수를 늘려가는 속도는 더디지만 다양한 국가, 다양한 학교에서 온 다양한 문화를 지닌 학생들이 캠퍼스에 모여 서로의 문화와 언어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이동렬 국제협력팀장의 말이다.

1대1 교환 프로그램은 장점이 많다. 우선 다양한 문화를 접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영어는 물론이고, 스페인어, 스웨덴

어, 중국어, 아랍어, 아프리카 원주민어 등 다양한 언어와 그들의 문화를 고스란히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학교에 온 외국 학생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한국 문화와 한국어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갈 수 있어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유럽이나 미주대륙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접하긴 힘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우리학교 학생들도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남미, 유럽, 아프리카, 아랍 문화를 굳이 외국에 나가지 않고서도 이렇게 접할 수 있으니 정말 좋은 프로그램 아닌가요?”

이동렬 팀장의 설명은 이어진다.

“1대1 교환 프로그램의 또 하나의 장점은 개개인이 파견되기 때문에 친구들끼리 몰려다니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외국학생과 우리학교 학생들이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거꾸로 외국대학으로 파견된 우리학교 학생들도 혼자 파견되는 경우가 많으니 현지 학생들과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우리학교에서 외국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진 상태에서 외국에 파견되다보다 현지생활에 적응하기가 한결 수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만큼 외국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니까요.”

이처럼 국제협력팀은 세계로 향하는 아 주인을 위한, 혹은 아주대로 향하는 외국 학생들에게 든든한 베이스캠프가 되고 있다. 아주대 구성원들이 세계와 이야기를 나누고, 세계를 향해 당당히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발판인 국제협력팀. 이름 그대로 세계를 향해 열린, 소통의 창이다. ☺



국제협력팀은 캠퍼스 국제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제교육자협회 3대 컨퍼런스인 NAFSA, EAIE, APAIE 등에 참가, 세계 유수의 대학과 자매결연 및 실질적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는 50개국 170여 개 대학과의 자매결연을 맺고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320여 명의 학생이 외국 자매대학으로 파견된 반면 아주대를 찾은 외국인 학생은 600여 명이었다. 아주대 학생들은 이제 일정자격 이상만 된다면 누구나 해외대학에 파견될 수 있는데다 한 번 다녀온 경험이 있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두 번까지도 교환학생 지원이 가능하다. 따라서 세계 이곳저곳 다양한 문화와 경제·정치·사회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다. 이밖에도 국제협력팀에서는 어학연수, 문화체험, 국제여름학교 등 1년 내내 각종 국제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학문간 소통과 융합교육은 시대적 흐름이다. 지난 1998년 인문학과 공학, 디자인 등의 학문이 서로 소통함으로써 탄생한 미디어학부. 21세기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내 최초로 아주대에 미디어학부가 설립되어 멀티미디어 및 디지털콘텐츠 분야를 시작한지 벌써 10년이 지났다. '21세기를 주름잡을 미디어의 혁명가를 키워낸다'는 모토 하에 공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게임, 애니메이션 등의 분야에서 인재를 양성해온 미디어학부는 오늘을 넘어 미래와의 소통을 준비하고 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오규환 교수를 만났다.

오규환 교수 + 미디어학부

● 융합, 미래형 인재를 키우다



疏通

"미디어학부라는 이름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신문방송학과를 멋있게 부르는 이름이라고 물어봐요. 하지만 아주대학교 미디어학부는 더 큰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멀티미디어학부'의 준말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신문방송학부터 게임, 컴퓨터그래픽, 3D, 영화·애니메이션까지 미디어와 연관된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전공입니다. 따라서 신문방송 분야 뿐 아니라 게임, 애니메이션까지 모두 배울 수 있는 곳이지요.

정보통신대학에 속해있다고 이과 학생들만 입학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문과 학생들에게도 입학의 기회를 주고 있는데, 실제 구성비는 문과와 이과 출신이 반반 정도입니다. 문과 이과 출신 학생들이 함께해서 좋은 점은 전공 수업의 프로젝트 진행 때 나타납니다. 각각 좋아하고 잘하는 분야가 정반대다보니 자신의 강점인 분야에서 각자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한데 어울리면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분야의 지식이나 기술을 익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프로그래밍을 잘 하는 학생은 디자인을, 디자인을 잘 하는 학생은 스토리텔링을 익혀나가는 거죠.

그렇다고 모든 분야를 잘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정도 이해를 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흔히 21세기는 지식산업사회라고 하죠. 지식산업사회에서는 단순히 그림만 잘 그려서, 프로그램만 잘 짜서, 이야기만 잘 만들어서는 전문가라고 할 수 없

습니다. 프로그래밍을 잘 하지만 디자인에도 조예가 깊고, 디자인 감각이 뛰어나지만 스토리텔링도 잘 아는, 그런 인재가 고부가가치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지요.

제가 넥슨이라는 게임회사에서 재직할 무렵 느낀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능력이 뛰어난 신입사원을 선발해 현장에 바로 투입하고 싶어 하는데 대학을 갓 졸업한 친구들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자신의 실력을 십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이유는 한 분야만을 집중적으로 공부했기 때문이지요. 다른 분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보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걸림돌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주대 미디어학부는 10년 전부터 제대로 목표를 설정해 필요한 인재를 길러냄으로써 미래를 선도해 나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디어학부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컴퓨터그래픽과 영상, 사운드 등이 결합된 총체적인 결과물들을 만들어냅니다. 자유전공 제도를 도입, 자신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며 학교 수업과 병행해 미디어 창작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이처럼 자유롭게 주위 환경에 휘둘리지 않으며 자신들이 원하는 분야를 깊이 있게 배우며 상상을 현실로 실현시킬 수 있는 곳이 바로 아주대학교 미디어학부입니다.

이제 10년이라는 세월의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도하고 있는 게임분야만 봐도 외부대회 수상실적은 그 목록을 다 적지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이미 올해에만 소아암환자를 위한 가능성 게임 공모전 우수상과 대한민국 인디게임 및 게임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2회 수상을 했어요.

아주대 미디어학부 졸업생들은 누구보다도 큰 장점, '다른 분야를 이해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마음자세'를 갖추고 있는 미래사회가 원하는 인재들입니다." ☞

미디어학부의 뛰어난 교육환경

고가의 최첨단 장비들이 즐비한 산학협력관은 미디어학부에 거는 기대를 대변한다. 미디어학부는 3D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제작에 필요한 모션캡처 시스템, 대규모 컴퓨터그래픽 작업을 실시하는 렌더팜 시스템, HD급 화질 편집장비를 통한 영상편집시스템, 최종 편집본을 디지털 등으로 변환시키는 영상출력 시스템, 실사 촬영에 컴퓨터 그래픽을 입힐 수 있는 실시간 이미지 촬영 시스템, 동시녹음장비 등의 실습장비, 녹음 및 믹싱 등 다양한 사운드 작업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스튜디오까지 갖추고 미래와의 소통을 준비하고 있다.

아주는 활발하게 소통 중이다.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을 만나보자.

아주는 지금 소통 중

아주심리상담센터

지난 2003년 개원한 아주심리상담센터는 경기도 유일의 대학부설 심리상담 전문기관으로 아주대 교수들과 경력 10년 이상의 수준 높은 상담원들이 직접 상담을 진행한다. 심리적 안정 및 능력 개발을 통한 삶의 가치 창조를 목표로 다양한 연령의 개인 및 단체의 건강한 삶과 개인별 특성에 맞는 능력 개발을 위해 검사, 치료, 교육, 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아주심리상담센터는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위해 해마다 2회씩 무료강좌를 개최하고 있다. 무료강좌는 주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녀교육방법을 알려주는데 이어 진행되는 '주역력향상프로그램', '사회지능길라잡이' 등의 정규프로그램 등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부터는 이외에도 심신건강향상 강좌를 마련해 스트레스 관리법 강의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평생교육센터

평생교육센터는 교육기회 평등과 평생학습사회 구현에 선도적인 역할과 사회봉사를 실천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인재를 양성하고자 일반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다. 1995년 평생교육원 개원 이래 지식개발 활동을 위한 강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오고 있으며, 또한 사단법인 한국 대학부설 평생 교육원협의회가 인증하는 자격증 인증과정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여 실력 있는 전문인을 육성하고 있다. 현재 영어 및 논술 등 각종 지도사를 위한 대교협자격증과정, 전문교육과정, 문화예술교양교육과정, 건강관리교육과정, 생활체육교육과정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사회진출센터

사회진출센터는 종합적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학생들의 사회진출에 도움을 주고 있는 곳이다. 1:1진로상담 및 무료 인·적성검사 등 진로 지도를 통해 취업경력을 개발하는 것 이외에도 입사지원서 작성 및 모의면접 및 특강 등의 취업스킬 향상, 선배초청 간담회 및 선배와의 네트워킹 등 멘토링 시스템, 취업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특히 학년별로 목표를 설정, 1학년 자기분석과 진로계획, 2학년 진로설계 및 직업탐색, 3학년 진로목표 설정 및 취업역량 갖추기, 4학년 구직활동 등으로 세분화되며, 상시 프로그램과 특별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사회진출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리더십센터

여성리더십센터는 경기도 지역사회의 정치, 경제, 시민사회 영역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의 리더십 역량을 증진시키고, 성차별적 사회환경 속에서 여성들이 당면하는 문제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해 보급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이다. 고급 여성인력의 육성 및 활동도 제고에 대한 국가적 요구와 기존 여성 활동가들의 리더십 향상에 대한 열망에 부응하고자 2003년 1월에 설립, 이후 경기도와 수원시를 비롯한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지역사회 내 여성리더십 확대와 여성 활동가들 간의 교류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으며,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의 아주대학교 내 설치와 경기도여성정책포럼의 창립을 주도하였다.



학생상담센터

학생상담센터는 1981년 학생처 산하 학생생활연구소로서 출발, 2003년에 보다 많은 학생들의 자아실현, 건강한 대학생활, 정신건강 및 삶의 질을 제고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주대학교 부속기관인 학생상담센터로 변모하였다.

신학생회관 412호에 위치한 학생상담센터에서는 개인 심리 상담, 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 집단 상담, 다양한 워크숍과 특강 등을 통해 학습 및 진로에 필요한 기술 습득 및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학생들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이끌어 자신에 대한 이해 및 자기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오아시스(Ajou Sisterhood)는 남학생 중심의 취업지원, 여학생들의 소극적인 취업준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부의 지원을 받아 여대생의 체계적인 경력개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는 대학생활 초기부터 자기탐색과 직업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여 조기에 직업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토대로 학업설계 및 전문능력신장, 그리고 봉사활동 및 사회활동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분야로 진출 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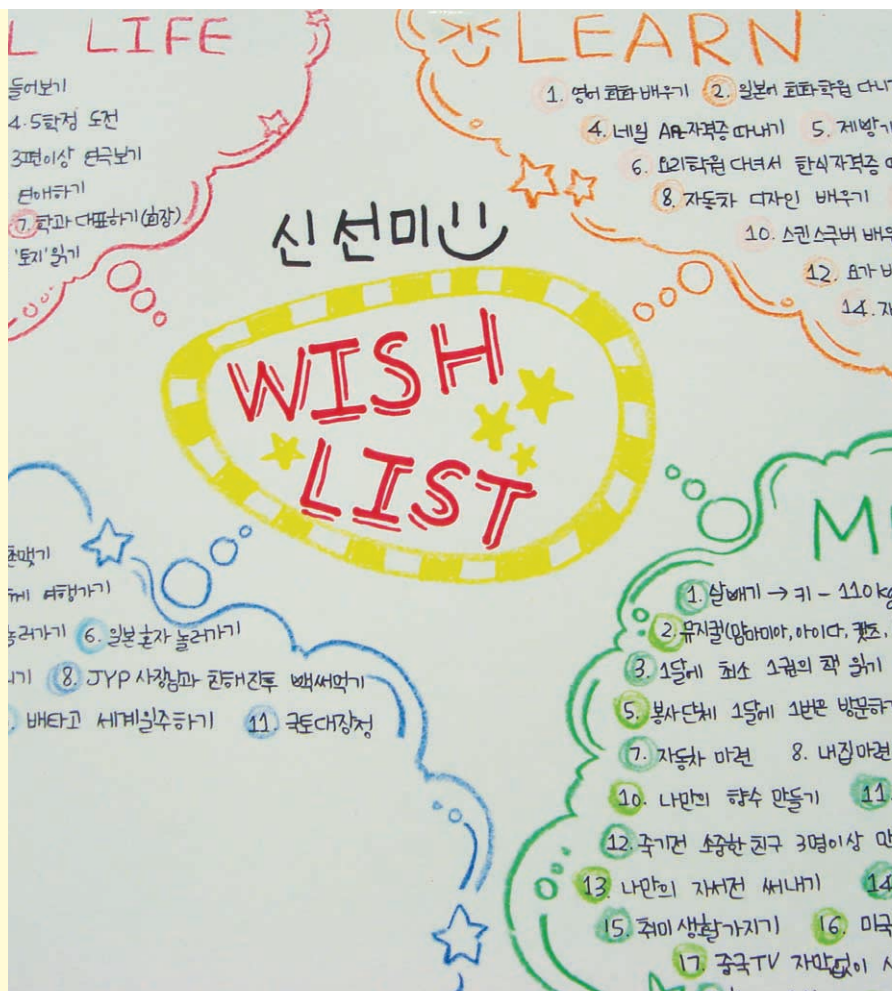


신입생집중교육

첫 여름방학 제대로 보내기 노하우

아침 6시 기상, TOEIC집중교육, 국제매너 및 다문화 강좌,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프로그램 이수, 유머, PR 등 대학교양 특강, 2박3일간의 진로캠프 참가... 아주대학교 신입생 180명은 신입생집중교육이라는 이름하에 그 어느 때보다 바쁘고 알찬 첫 여름방학을 보냈다. 6월 23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비록 3주에 걸친 짧은 기간이었지만, 앞으로의 대학 4년 생활에 밑거름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번 신입생집중교육을 통해, 참가자 대부분은 모의 토익점수가 평균 100점 가까이 올라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적성검사 및 진로상담을 통해 앞으로의 인생목표를 정할 수 있었던 것도 커다란 성과였다. 특히, 우수이수자에게는 해외배낭여행 비용 지원과 어학교육센터 수강권 등의 부상을 비롯해 교환학생 지원 시 가산점이 부여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일석삼조의 기회였다. ☺



젊고 도전하는, 아주를 닮은 개척자

어린 시절에 보았던 '6백만불의 사나이'와 'I'll be back'을 외치던 '터미네이터'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바로 재생의학에 의해 탄생한 주인공이라는 것이다. 재생의학은 줄기세포를 이용해 신체의 장기나 근육, 피부 조직 등을 치료하고 재생하는 '21세기의 꽃'이라 불리는 학문이다. 학문적으로 연구가 시작된 지 불과 10여년에 불과한 이 신생 학문에 출사표를 던진 김문석 교수. 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신의 모습과 닮은 아주 대학교에서 학문적 깊이와 연구의 폭을 넓혀나가겠다는 포부를 지닌 그를 만났다.

응용화학생명공학부
김문석 교수



우연에서 필연으로

김문석 교수가 연구하는 재생의학은 그의 이력만큼이나 다양한 분야가 융합된 학문이다. 그는 학문에 대한 열린 자세와 연구에 대한 열정으로 새로운 영역에 끊임없이 도전해 오늘에 이르렀다. 우선 대학에서 재료공학을 전공했던 그는 미국에서 박사후 연구과정에서 바이오연구로 시야를 넓혔고, 이후 한국화학연구원에서 바이오분야 연구를 통해 재생의학으로까지 학문적 영역을 확대했다. 돌이켜보면 5-6년에 한 번씩 삶의 전환기를 거쳐 왔던 것이다. 공교롭게도 그때마다 아이가 태어났다. 그래서 세 자녀의 나이가 모두 5-6살(중2, 초2, 3살) 터울이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전환기가 바로 아주대학교와의 만남이다.

“아주대와는 의과대학 민병현 교수님과의 인연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재생의학 분야의 특성상 임상과의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데, 민 교수님께서 아주대에 아직 제가 연구하는 기초분야가 없으니, 함께 해보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저도 그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때 우연히 채용공고가 뜨는 거예요. 우연이 필연이 되는 순간이었죠.”

아주대는 훌륭한 연구 토양

국외 SCI 논문 91편, 국내 논문 40편, 특허 등록 10건 등 그동안의 연구와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아 아주대에 특별 채용된 김문석 교수는 아주대와 함께한지는 1년여에 불과하지만, 아주대의 가능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

“대학원생들을 처음 만나고는 깜짝 놀랐어요. 강의시간에 발표력이 기대 이상으로 뛰어났기 때문이죠. 또 실험테마에 대한 창의력도 매우 높아서 앞으로 함께 연구해 나가는데 기대가 매우 큼니다. 저는 이러한 아주대의 토양을 최대한 활용해서 재생의학의 창시자이자 스승이신 이해방 박사님처럼 제가 연구하는 이 분야에서 하나의 큰 그룹을 형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 임상분야의

최고봉인 민병현 교수님과 연계해 아주대를 기초부터 임상까지 전주기적인 재생의학의 메카로 만들고 싶어요.”

학생과의 상담도 흥미로워

“아주대에서 처음으로 접한 흥미로운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학부생이 수강신청을 위해서 교수와 상담을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1학년 학생들에게 공부에 대한 얘기보다 가급적 많은 일을 경험해보라고 말해주었죠. 저 역시 대학교 1학년 때 무전여행과 수박장사를 했었는데, 어려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동시에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어요. 또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은 여러분이다. 나는 조연에 불과하다. 연극무대에서 박수갈채는 주인공의 몫이다. 본인이 만족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보라'고 이야기했는데, 조금은 감동적이었나 봐요. 감사하다는 메일도 오고 상담도 자주하더라고요. 내년에는 어떤 이야기를 할지 벌써부터 고민이에요.”

재생의학은 재료공학, 생물공학, 생화학, 물리학 등이 망라된 분야이며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 약물전달, 생체재료 개발 등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다학제적 의료융합학문이다.



재생의학이 내과나 소아과처럼 병원의 한 진료과목이 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란다는 김문석 교수의 바람은 차츰 아주대 내에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학문적 깊이와 연구의 폭을 더하고자 아주대 응용화학생명공학부에 막 뿌리를 내린 그의 연구가 아주의 역사와 함께 더 깊어갔으면 한다. 끝으로 2010년판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 후'에 등재된 것을 축하드리며, 이처럼 아주대에서 계속 좋은 일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



동아리 활동을 통해 음악의 날개를 펴다

'음악도 농담하듯이 자연스럽게 풀어내 보자' 는 이름 그대로 밝고 신나는 음악을 추구하는 슈퍼키드의 보컬이자 노래로 유쾌함을 퍼뜨리는 해피바이러스 전도사 허ček. 그가 바로 건축학부 98학번 전덕호 동문이다. 2004년 대학가요제 금상으로 실력을 인정받으며 데뷔한 허ček은 아주대에서 가수의 꿈을 이룬 영원한 아주인이다.

슈퍼키드 보컬 허ček(건축학부 98학번 전덕호)



아주에서 끼와 실력을 키우다

"EBS 교재 뒤에 있던 광고 '젊음만 가지고 오십시오. 나머지는 아주대가 책임지겠습니다' 는 문구에 확~ 꽃혔어요. 다른 학교에 비해 옛지 있고 신선한 느낌이 들면서 젊은 대학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어려서부터 막춤으로 동네 아주머니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초등학교 때 방송국에서 주최한 동요대회에 나가 2등을 차지할 만큼 재능과 끼를 보였던 전덕호 동문은 아주대를 선택한 이유도 남달랐다. 입학 이후, 첫 신입생OT에서 단지 목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응원단장을 맡으며 교내에서도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 이처럼 전 동문은 아주대와 만나면서 잠재된 끼를 한껏 발산하기 시작했고, 다양한 음악동아리에서 활동하면서 실력과 끼를 더욱 키워나갈 수 있었다.

"당시만 해도 전국에 거의 없던 컴퓨터음악 동아리 '미디어로지' 와 막 생겨난 힙합동아리 '비트' 에 가입했어요. 그 외에도 몇 개의



공부를 하고 싶다면 정말 열심히 해서 장학금도 받고, 교환학생으로 외국에서 공부도 해보고, 동아리나 소학회들 통해 워든 배우고 익힌다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살아간다면 아주대에 몸담은 여러분은 뭔가 얻어갈 수 있을 겁니다. - 허ček이 학교 게시판에 남긴 글 -

음악동아리에서 활동했는데, 현재의 제가 있기까지는 이들 동아리의 힘이 컸어요. 특히, 1999년 대동제 때 학교 앞 삼거리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지역주민들까지 함께 해서 수천 명의 관객이 모였어요. 이렇게 많은 관객들 앞에서는 첫 공연이었는데, 너무 재밌고 신나는 거예요. 그때 짜릿하면서 원가 확~ 스쳐 가는데, 아마도 앞으로의 운명을 예감했던 거 같아요."

'허ček' 이라는 또 하나의 이름

전덕호 동문은 2004년 대학가요제에 남성듀오 '허니ček스' 로 참가, 금상을 수상하며 가요계에 데뷔했다. 이때부터 허ček이라는 예명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허니ček스는 제가 좋아하던 과자이름이에요. 사실 이전부터 PC통신에서 아이디로 사용했는데, 당시 동호회 멤버들이 줄여서 '허ček' 이라고 불렀어요. 그 이름이 제 이미지와 잘 맞았는지 다들 그렇게 부르다보니 자연스럽게 지금의 '허ček' 이 된거죠."

이후 허니ček스의 주 활동무대는 흥대 라이브 클럽이었다. 합주실에서 연습을 마치면 클럽을 돌아다니면서 무대에서 공연을 했던 것. 그러던 중 신나게 노래를 즐기는 이들의 모습에 반한 현재의 기획사 사장이 5인조 밴드 음악을 권유하기에 이른다.

"학연, 지연, 통신연 등을 총동원했어요. 결국 3명을 더 모아 허니ček스는 '슈퍼키드' 라는 5인조 밴드로 재탄생되었어요. 그리고 다음해인 2006년에 1집을 발표했는데, '어쩌라고' 라는 노래의 직설적인 가사가 어필되었는지 흥대 앞에서는 나름 유명해졌죠." 보다 대중적으로 얼굴을 알리기 시작한 것은 MBC의 '쇼바이벌' 이라는 프로그램에서다. 당시 슈퍼맨 복장과 확성기를 캐릭터로 내세



운 슈퍼키드는 가장 주목받는 신인 그룹 중 하나였다. 얼마 전에 2.5집을 발표하면서 공연과 방송에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보컬 허ček이 말하는 슈퍼키드 공연 100% 즐기는 방법이다.

"절대 주위사람의 눈치를 보지마세요. 무대 위에 있는 저희가 이성의 끈을 놓고 노니까, 신나는 리듬이 나오면 맘껏 놀고 소리치고 싶으면 막 지르세요. 그러면 해피바이러스가 여러분 속에 퍼져나갈 거예요. 슈퍼키드 공연은 관객과 저희 사이의 에너지 상호작용이니까요."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두길...

전 동문은 아주대에서 건축학을 전공했다. 이와 중에서도 가장 이과스럽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표현하고 상상할 수 있어 건축을 선택했다는 그는 만일 가수가 되지 않았다면 공사 현장을 누비며 일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전공 수업시간에도 평범한 학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김도식 교수님께는 설계시간마다 거의 매번 혼이 났죠. 다른 예술 분야에 조예가 깊으신 교수님께서 영화를 보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건축과 관련해 강의를 하시고는 했는데 무척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인지 새 앨범이 나오면 찾아뵙는데, 비록 전공은 아니지만 한 분야에 몰두하고 노력하는 제 모습을 좋게 봐주시죠."

그가 음악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아주대에서 기회와 가능성을 활짝 열어두었기 때문이라고. 공부 이외에도 아주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혜택을 찾아가다 보면 자신만의 길을 반드시 만날 수 있으리라 확실하는 전덕호 동문.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선택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저 역시 여러 음악동아리 활동을 통해 제 꿈을 향해 한발자국씩 다가갔잖아요. 대학생활에서는 직접 찾아가 두드려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두드리세요. 그래도 안 열리면 깨뜨리세요! ☺"

뜨겁게 사랑하고 날카롭게 풍자한다

펜과 종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담은 세상을 표현하고자 하는 아주인들의 모임인 만화동아리 '고슴도치'는 단순히 만화를 보고 읽고 즐기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만화를 직접 그리는 창작 동아리이다. 어린 시절부터 접해온 친근한 매체인 만화를 통해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의식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만화동아리 고슴도치는 만화에 대한 애정과 창작에 대한 열정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자신들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창작전시분과 만화동아리 '고슴도치'



'잘 그리기' 보다는 '함께 그리자'

날카로운 고슴도치의 털처럼 '뜨겁게 사랑하고 날카롭게 비판하자'라는 모토로 만화를 통해 사회를 날카롭게 풍자하고자 1988년 출발한 시사만화동아리 '고슴도치'.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2005년부터 시사만화라는 수식어를 털어내고 자신들의 생각을 만화라는 매체로 표현하는 순수 창작동아리로 변화했다.

"만화하면 단순한 소일거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저희 동아리의 모든 활동은 창작만화를 그리는 것 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화를 보는 것 역시 창작을 전제로 이루어집니다. 과거 선배들의 정신을 지금 현실에 맞추어 생각 있는 만화를 그려보자는 것이 고슴도치의 생각이에요."

현재 2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에 있으며 만화를 배우고 그리는 것에 동아리 활동의 포커스를 맞춘 활동들을 한다. 매주 열리는 '만화강좌'를 통해 그림을 그리고 서로의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만화에 대한 서로의 노하우를 배워간다. 정해진 스토리를 가지고 한 명씩 만화를 이어가는 릴레이 만화 그리기 등 새롭고 흥미로운 방법도 끊임없이 시도 한다.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잘 그리자'가 아니라 '함께 그리자'입니다. 대부분의 동아리와 마찬가지로 실력이 아니라, 열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창작동아리인 만큼 실제로 만화창작 분야로 진출한 선배도 있다. 한국화 느낌의 그림으로 우리 고유의 이야기들을 만화로 표현하고자 결성된 '붓과 펜'이라는 팀에서 활동하며 연출과 데생을 담당했던 이민호 동문

은 고슴도치 7기. 「산은 산, 물은 물」, 「수한과 민아의 사랑일기」, 「Let's Go!」, 「어린왕자」 등을 작업하며 고슴도치를 통해 창작활동을 본격화했다고 한다.

학업과 취미 병행은 필수

'고슴도치' 동아리방은 소규모 만화방을 연상시킨다. 한쪽 벽으로는 꽤 많은 만화책이 뿔뿔히 꽂혀 있다. 그렇다고 만화책에만 빠져서 학업을 소홀히 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만화가 주는 위안과 즐거움을 잊지 않는 것 뿐, 이들 역시 과제와 퀴즈에 쫓기고, 시험에 스트레스 받는 평범한 대학생이다.

"만화는 취미의 일부예요. 스트레스를 떨쳐내기 위한 방편이 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

들이 술을 마시거나 운동을 하거나 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듯이 저희는 그 매개체가 만화가 되는 거죠. 더불어 만화 속 이

“평소에는 지식이나 주변을 따뜻하게 감싸지만 위험이 감지되면 날카롭게 가시를 세우는 동물 고슴도치에서 유래된 동아리 이름은 시사만화동아리 시절, 때론 사회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때론 따뜻하게 감싸는 의미로 지어졌다.”

아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키우고, 만화 속 인물들을 만나며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접하며 많은 것을 배우니 오히려 더욱 생산적인 활동이 아닐까요?."

고슴도치는 창작활동 외에도 만화가 주는 긍정적인 점을 부각시키고 취업문제와 학업에 지친 학우들이 만화를 통해 정서함양과 휴식의 시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교내 행사도 계획 중에 있다. 다음 학기부터는 외부 강사 등을 초빙해 다양한 장르의 그림에 대해 배워나갈 계획이라는 이아름(기계공학부 05) 학생은 "비단 고슴도치 회원들만 강연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만화에 관심이 있는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만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고슴도치는 창작활동을 통해 대외적인 이미지 쇄신에도 노력하고 있다. 매년 2회 학교 축제와 학술제 기간에 정기 전시회를 갖고 캐릭터를 만들어 팬시사업을 진행하며, 이외에도 복지관이나 학교에서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만화교실을 개최하기도 하고 캐릭터 그리기 등 만화를 통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교외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현재 회장을 맡고 있는 백경훈(건설시스템공학부 08) 학생은 앞으로 대내외적인 활동을 늘려갈 계획을 밝혔다.

"싸이월드 클럽으로 네트워크 교류의 장을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활동을 공개적으로 시작해 동아리 선후배가 웹을 통해 교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만화동아리와 교류를 통해 대외적 활동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과제에, 퀴즈에 지쳐있는 아주인이라면 고슴도치의 일원이 되어 펜으로 그려내는 달콤 쌉쌀한 세상을 만나보는 것은 어떨까? ☺



아주대학교 ITS대학원은 우리나라 ITS의 미래입니다

교통체계는 한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다. 기본적인 교통시스템에 IT를 접목한 학문인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지능형교통체계). 아주대학교에는 우리나라에서 하나뿐인 ITS대학원이 있다. 2000년 설립된 ITS대학원은 많은 지자체와의 실무협약을 통해 노하우를 전수해 나가고 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평택시와 최첨단 교통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협약을 체결해 기술자문과 기관인력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평택시 교통행정과에서 말하는 최고의 파트너 ITS대학원에 대해 들어보자.

평택시가 말하는 ITS대학원



‘도로 위의 교통량을 파악해 출퇴근시간과 같이 교통량이 증가하면 신호등을 자동 제어해 전체적인 교통 흐름을 관리하고,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와 함께 빈좌석 수까지 알려준다. 또한 버스 노선이나 환승 등의 종합정보를 제공하며, 막히지 않는 빠른 길을 내비게이션이 알려준다.’

지난 6월 아주대 ITS대학원과 기술협약을 맺은 평택시가 이와 같은 지능형교통시스템을 2020년까지 구축할 목표를 세웠다. ITS대학원은 평택시 ITS 정책 및 수의모델을 개발하고 기술자문을 하며, 홍보 및 견학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이를 뒷받침한다.

“우리 평택시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등 대규모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으로 교통 수요의 급속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요. 도로 신설, 확충 등의 교통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지요. 이에 따라 최첨단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교통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통관련 선진 기술 노하우를 가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했어요. 아주대 ITS대학원은 관련 분야의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동시에 원천 기술을 가진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평택시 교통행정과 최장호 과장은 말한다.

“

앞으로 평택시의 교통관련 인력을 아주대학교 ITS대학원에 위탁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ITS 전반의 체계에 대해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평택시 교통을 총괄하는 교통관제센터는 한 쪽 벽면 전체를 차지하는 전면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현장의 상황이 교통측정 카메라를 통해 중계되고, 책상마다 놓인 50여 대의 모니터에도 실시간 전송되어 평택 시내 전체의 교통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자랑한다. 이와 같은 첨단분야는 누적된 데이터나 기존의 정보가 많지 않아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우수한 파트너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국내 유일의 ITS대학원인 아주대 ITS대학원과 파트너십은 당연한 결과라고 최 과장은 말한다.

“비록 두 달여의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와 함께 일하는 아주대 연구진은 프로페셔널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총 52명의 석·박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문지식이나 노하우 등 저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 앞으로 큰 기대를 갖게 합니다. 특히, 파주시 및 시흥시 ITS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등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경험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값진 것이죠.”

평택시가 교통시스템에 ITS를 도입하게 된 것은 충분한 노하우를 통해 자문해줄 수 있는 아주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최 과장은 아주대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표현했다.

“아주대 ITS대학원은 국제화 중심도시로 발돋움해 나가는 우리 평택시의 비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 우리 시의 여건에 적합한 시스템 개발과 교통관리 비전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파트너로서 상대를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일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말이지요. 기술협약 외에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위탁 교육을 통해 앞으로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최적의 협력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주대학교 ITS대학원은 평택시 ITS의 미래이자 더 나아가 한국 ITS의 미래입니다.”

INTERVIEW

오영태 ITS대학원장(現 대한교통학회 회장)

ITS대학원을 보유한 국내 대학은 아주대가 유일합니다. 2000년 개원 이래, 독보적인 기술력과 정보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평택시뿐만 아니라 군포, 화성, 오산, 과천 등의 시(市)들과 협력체계를 통해 우리나라 ITS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결코 길지 않은 시간 안에 기술자문과 협약이 이루어지기까지 부단한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ITS라는 분야를 알리는 것과 아주대학교 ITS대학원을 홍보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이제는 아주대학교 ITS대학원만의 실력과 권위를 인정받아 전국의 기관 및 기업에서 먼저 협력 제의가 이어지고 있죠.

사회가 변화하고 발전할수록 사회인프라에 대한 기대와 요구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ITS는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가까운 학문이자 기술입니다. 때문에 학부에서 전자공학과 정보통신을 공부한 전공자들이 IT와 접목된 분야에 호기심을 느끼고 입학하기도 하며 실제로 시의 교통행정과나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 회사원들도 좀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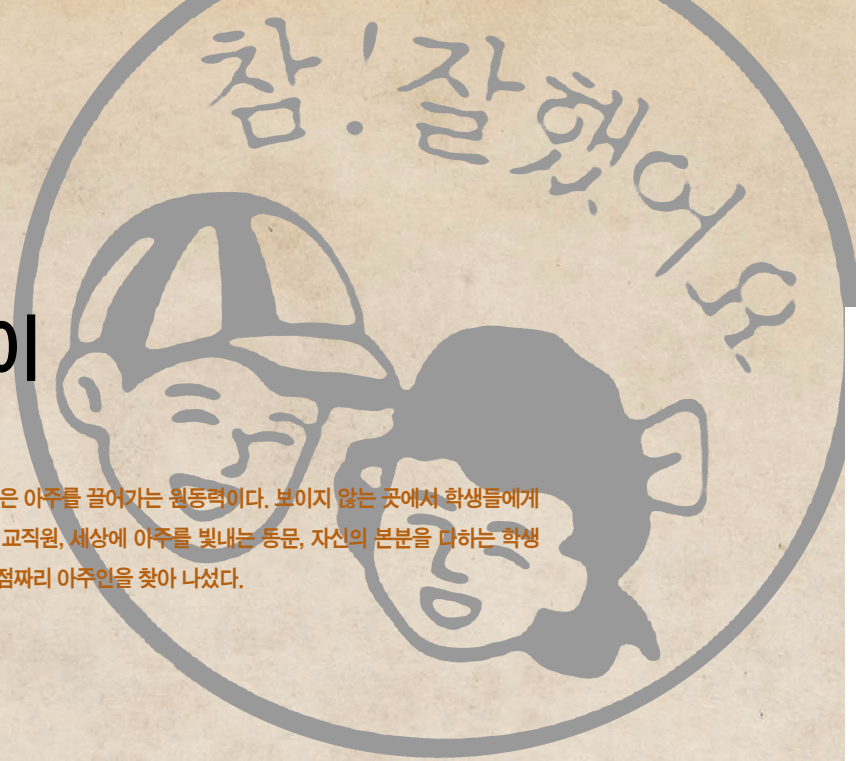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배우기 위해 석사과정을 밟고 있기도 합니다. 졸업생들은 교통관리공단, 교통인력공단, 도로공사, 각종 자치단체의 교통행정 관련 부서에서 ITS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경찰청의 ITS 단기교육을 맡고 있으며 전국에서 모인 경찰들을 대상으로 아주대만의 노하우와 전문 기술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이들이 아주대에서 ITS분야를 공부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서 인정하는 ITS 법적기관 인증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아주대 ITS대학원이 많은 전문 인력을 배출하는 것은 곧 우리나라 ITS의 미래를 밝히는 길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아주대 칭찬 릴레이 “참! 잘했어요”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아주의 구성원들은 아주를 끌어가는 원동력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생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교수, 묵묵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직원, 세상에 아주를 빛내는 동문,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학생 등 홍보팀 인턴 이혜림 학생이 자신의 몫을 다하는 100점짜리 아주인을 찾아 나섰다.

글, 사진 이혜림(홍보팀 학생인턴)



이혜림 (건축학부 4학년, 홍보팀 학생인턴)

지난해 여름, 신학생회관에서 열린 한 기업의 채용설명회에 참가했습니다. 설명을 듣고 나서 첫 이력서를 쓸 일이 생겨 급하게 사회진출센터로 가서 이력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쓰는 이력서라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몰라서 헤매고 있던 중에 이 모습을 본 유남경 선생님께서 많은 샘플을 보여주시고 함께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힘을 얻어, 열심히 이력서를 작성한 결과 무사히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저에게 채용기회는 오지 않았지만 유 선생님의 조언을 들으면서 앞으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내 장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 선생님의 도움이라면 아주대 학생들의 취업은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유남경 선생님, 감사합니다!



유남경 (사회진출센터)

사회진출센터에서 일하다보니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대부분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단지 취업을 위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황재웅(화학·신소재공학부 99학번) 동문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무조건 붙고 보자'는 지원보다는 이미 자신이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파악해 취업하고 싶은 20곳의 기업을 추려왔습니다. 실제 이런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 취업 후에도 만족도가 높아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 동문은 일단 목표가 정해지면 '취업은 연애와 같다'면서 자기소개서를 연애편지 쓰듯, 면접은 프리포지셔너 열정적으로 매달 리더군요. 현재 SK건설에 재직 중인데 자신의 일에 아주 만족하면서 앞으로의 포부도 대단합니다. 황 동문처럼 아주대 학생들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진로를 결정한다면 우리 사회진출센터에서도 학생들에게 도와 줄 수 있는 것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황재웅 동문, 파이팅!



황재웅 (화학·신소재공학부 99, 현 SK건설)

20곳의 입사지원 결과 두 군데에서 합격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군데 모두 제가 가고 싶어 하던 곳이라 선택 결정하기 힘들 때 박은덕(대학원 에너지시스템학부) 교수님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연구하시고, 매 수업시간마다 보여주는 열정적인 모습에 평소 존경하고 있었는데 취업상담도 열정적으로 해주시더군요. 교수님의 회사재직시절 경험까지 말씀해주시며 조언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조언을 토대로 깊이 고민해 결국 SK건설의 기계장치팀으로 결정했습니다. 열정적일 뿐 아니라 따뜻하기까지 하신 교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20년 후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박은덕 교수님,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박은덕 교수(대학원 에너지시스템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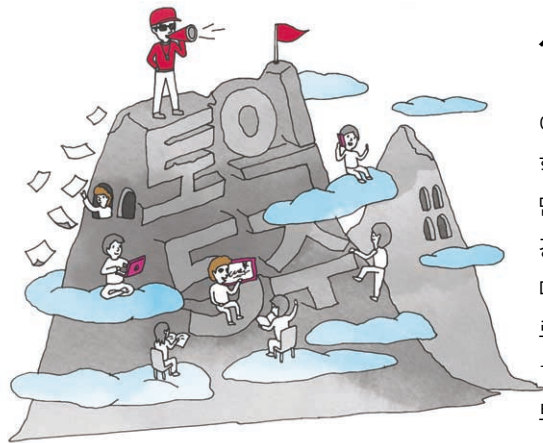
우리학교에서 학사, 석사를 마치고 지금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 두 명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학부 3학년 때부터 인턴 대학원생으로 참여하여 좋은 연구경력을 쌓고 있는 김윤하, 김용태 학생입니다. 하나의 연구를 시작하면 해답을 얻을 때까지 집중적으로 몰두하는 모습들을 보면 좋은 연구자로서의 자질과 자세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노력의 결실로 한국화학공학회 학술대회 우수포스터 발표상, 환경 에너지 논문 경진대회 우수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들의 이런 모습은 후배 대학원생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김윤하, 김용태 학생, 계속 지켜볼게요!



여름방학을 활용한 교내 무료 어학강좌

지난 여름, 사회진출센터,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등 재학생들의 사회진출 및 커리어를 지원하고 있는 센터와 각 단과대가 각각의 특성을 반영해 다양한 어학프로그램들을 수준별, 맞춤형으로 개설하여 큰 호응과 괄목할만한 성과를 얻었다. 여름방학을 맞은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 없이 좋은 기회를 제공한 다양한 어학프로그램과 그 성과를 소개한다.



사회진출센터, 토익사관학교

아주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5주 만에 평균 190점 향상의 신화를 이어가고 있는 토익사관학교는 토익역량강화반과 토익스피킹강화반이 개설되었다. 토익역량강화반은 500점 미만의 초급반, 중급반, 650점 이상의 고급반으로 나뉘어 오프라인강의 100시간과 온라인 강의 15강, 모의시험 3회, 영어말하기 능력을 위한 전화영어 15회(중·고급반)로 구성된다. 특히, 수료장학과 성적향상장학을 병행하여 수업에 빠지지 않고 성실히 출석하여 수료한 학생에게 수강료의 50%를, 초·중·고급반별로 상위 50% 성적이 향상된 학생에게 100%의 수강료를 지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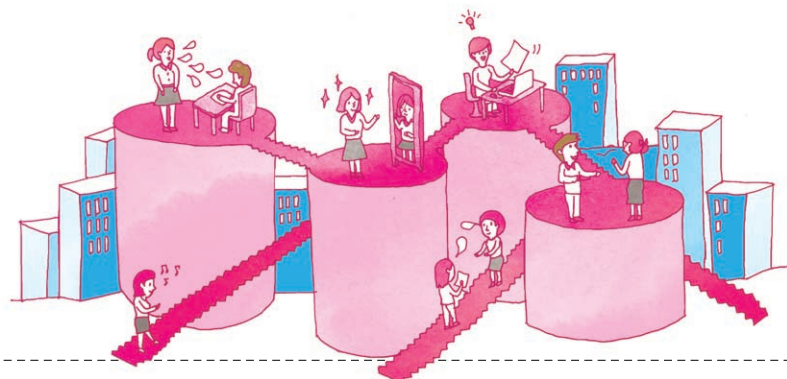
토익스피킹강화반은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나뉘어 온·오프라인 강의와 전화영어, 발음교정, 모의시험을 진행했고, 이 프로그램 역시 같은 수강료 혜택이 제공되었다.

문의 _ 031.219.2042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영어인터뷰집중과정

여대생의 취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영어 인터뷰에 강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맞춤형 영문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과 인터뷰 질문에 대한 전략적인 방법과 실제 훈련을 제공한 영어인터뷰집중과정은 고학년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총 37명이 참여해 인터뷰에 필요한 기본적인 4skce 등 방법론을 연습하고 표정, 동작, 목소리까지 실전을 통해 집중 지도가 이루어졌다. 개인별 맞춤 영문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전략적인 인터뷰 훈련을 병행하여 영어와 면접 두 가지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도록 했다. 이러한 강도 높은 집중훈련과 개인별 피드백을 상세하게 제공해 영어인터뷰에 대한 자신감은 물론 대기업 및 외국계 기업 취업 등 취업 퀄리티를 향상시켰다. 앞으로는 학생별로 사전 진로를 조사한 다음 원어인 강사와의 모의 인터뷰를 실시하여 영어인터뷰 스킬을 보다 집중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문의 _ 031.219.1746



인문대학, 어학집중교육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골라듣는 재미와 무료여서 더 즐거웠던 인문대학 어학집중교육 프로그램. 첫 번째는 한국어 및 한국문화 지도자 집중교육. 외국인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주는 동시에 한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까지 아우르는 심도 있는 강의로 진행되었다.

두 번째는 불어불문전공 및 부전공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프랑스어 능력향상 집중교육.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수준별 회화수업, 영화자막널기, 블로그를 통해 프랑스어로 인터뷰하고 기사쓰기, 상송과 연극 발표, 사진과 동영상에 대한 묘사와 설명을 하는 포토로망 등 다양한 아틀리에 프로그램으로 짜여졌다. 세 번째로는 아주대 학부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일본어 독해능력 집중교육. 일본어의 기본적인 문법과 문장으로 익히는 문법 등 독해시간이 마련되어 일본어 독해능력을 보다 심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문의 _ 031.219.2801



경영대학, 영어능력향상 프로그램

경영대학에서는 경영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역량 강화와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영어향상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는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원 수강 혹은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학원비 및 교재비, 시험 응시료를 지원하여 학생들에게 영어공부 동기 부여 및 영어실력 향상에 기여했다. 2008년 동계방학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영어능력 향상을 통해 취업 핵심 역량을 구축하고자 계획되었으며 토익역량강화반 등록생에게 교재비를 지원하고, 토익 750점 이상자 및 지방소재 학원등록자의 학원비 50% 지원, 토익 및 토익스피킹 시험 전형료를 년 1회 지원하는 등 돈 들이지 않고 영어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학생들 사이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2009년 겨울방학에도 진행될 예정이며 앞으로는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문의 _ 031.219.2970



정보통신대학, 재학생 영어능력향상프로그램

정통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영어능력향상 프로그램은 해외장·단기 연수 프로그램에 학생참여와 교내 공통으로 시행하는 해외 우수대학 교환학생 제도, 영어전공수업 등의 확대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있다.

매 방학마다 실시되는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인원은 지난해 하계 71명, 동계 34명으로 토익 및 토플반이 운영되었으며 참가자들의 성적이 평균 10~15% 향상되는 성과를 올렸다. 올해에는 토플1개반, 토익2개반 등 77명이 참여하였고 지난해와 비슷한 점수 향상의 성과를 기록했다. 특히 교육비와 토익시험 응시료, 교재비 등의 비용을 수료한 학생들에게 무료로 지원한다.

문의 _ 031.219.24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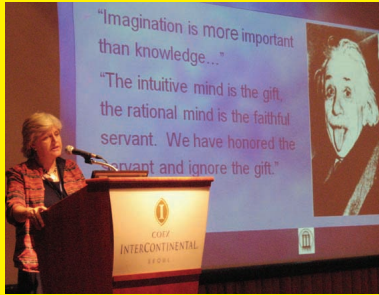


평생학습중심대학 선정 기념식 및 개강식 개최

평생학습중심대학 선정 기념식 및 개강식이 지난 7월 개최됐다. 기념식에서 서 총장은 “오늘은 아주대학교가 경기·서울·인천지역을 아우르는 제1권역 평생학습중심대학에 선정됨을 자축하는 기념식 겸 첫 프로그램의 개강식이다. 앞으로 아주대학교는 대학생들만의 교육기관이 아닌 지역주민까지 범위를 확대해 교육하는 ‘열린 대학’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평생학습중심대학은 지난 3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30개 대학과 45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사업으로 우리학교는 경기 서울 인천지역 등 수도권역 중심대학에 선정되었다.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7월 6일 개강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꿈나무 안심학교-방과후 아동지도자 양성과정, 꽃밭 창업 플로리스트 과정, 독서지도사 양성과정, 맘스 잉글리시 클래스-어린이 영어지도, 다문화 가족을 위한 글로벌 시티즌 아카데미 등 5개 과정이다.

김광윤 교수,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임명

김광윤(경영학부) 교수가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에서 임명하는 민간 비상임심판관에 임명되었다. 민간 비상임심판관은 조세심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상임심판관과 함께 조세심판 심리에 참여한다. 김 교수를 포함해 모두 11명이 3년 임기로 임용되었으며 특정심판부에 고정하지 않는 인력풀제도로 운영된다.



입학사정센터, '창의적 인재의 선발과 대학의 미래' 국제컨퍼런스 개최

입학사정센터는 7월 28일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창의적 인재의 선발과 대학의 미래’를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창의성 측정과 평가 분야에서 세계적인 석학인 바니 크래몬드박사(Dr.Bonnie Cramond, 미국 조지아대학 토렌스센터 센터장)의 ‘창의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강연을 비롯해 국내외 창의성 분야 석학들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임석철 입학처장은 “창의적 인재를 기르는 것만큼 교육에서 중요한 화두는 없다.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시험성적보다는 창의성을 평가해 잠재력 있는 인재를 선발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컨퍼런스를 기획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아주대학교의 입학사정관제의 긍정적인 발전에서 더 나아가 교육현장에서의 변화까지도 유도해 낼 수 있는 기회”였으며 컨퍼런스에 대한 성과를 전했다. 입학사정센터 관계자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가장 요구되는 창의적 인재의 선발과 양성에 입학사정관제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모색하는 자리”였으며 “입시교육 하에서 점차 사라져가는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을 되살리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현강 외 5명, '다이나믹 디자인 챌린지' 수상

이현강(건축학부 4학년), 문진영(건축학부 4학년), 조덕희(건축학부 4학년), 김민(건축학부 4학년), 구봉규(건축학부 4학년), 문지은(건축학부 3학년) 학생으로 구성된 FORTRESS팀이 '2009 다이나믹 디자인 챌린지'에서 최우수 설계 프레젠테이션 상을 수상하였다. 이현강 학생은 “PPT를 제작할 때 Medical&Social Center가 설계되기까지의 과정을 시나리오로 만든 동영상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했다. 프레젠테이션도 참가한 다른 팀과 차별화하기 위하여 영어로 최대한 즐겁게 진행한 결과 많은 호응을 얻었고 최우수 설계 프레젠테이션 상을 받게 되었다”며 수상 이유를 설명했다. 문지은 학생은 “김장훈 교수님의 공학 설계 및 실습B 수업에서 슬래브와 보의 모형을 제작하여 하중실험을 한 것이 결승에서의 모형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수업시간에 배운 이론을 활용하여 직접 모델을 만들고 실험을 할 수 있었던 뜻 깊은 경험이었다. 앞으로 우리나라 내진설계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연구를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위영철 교수, 장학금 5천 5백여 만원 약정

위영철 교수(정보및컴퓨터공학부)가 일반대학원 및 정보통신전문대학원 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5천4백80만 원 기부를 약정하였다. 지난 2005년부터 꾸준히 장학금을 기부해온 위 교수는 약정 금액 중 현재까지 총 2천2백30만 원을 기부하였고, 이는 외국인 학생 4명을 포함한 일반대학원 컴퓨터 공학전공 학생 5명과 정보통신전문대학원 학생 1명에게 장학금으로 수여되었다. 위 교수는 “현재 우리 학교 대학원에 우수한 인재가 무척 많다. 그 학생들이 앞으로도 연구 및 전공 공부를 계속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고 싶었다. 이를 계기로 이 학생들이 대학원까지 진학하여 우리학교에서 정보통신분야에 우수한 인재를 많이 양성하였으면 좋겠다”라고 기부 동기를 밝혔다.



건축학부, 친환경건축디자인공모전 휩쓸어

건축학부 학생들이 2009 친환경건축디자인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비롯해 11개 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녹색성장과 친환경 초등학교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930여 팀 응모했으며 1, 2차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작품, 우수상 3작품, 특별상 5작품 등이 선정되었고, 이 중 김경진(건축학부 3), 주수빈(건축학부 5), 김지훈(건축학부 3)팀이 출품한 'A.G.E. school'이 최우수상에, 진명재(건축학부 4), 염고은(건축학부 3)학생이 우수상에 선정되었다.

명한승 외 3명, '지능형모형차 경진대회' 은상 수상

명한승(전자공학부 4), 김동현(전자공학부 4), 최기용(전자공학부 3), 정호현 (전자공학부 2) 학생이 '지능형 모형차 경진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하였다. 정호현 학생은 “라인트레이서 대회 중 국내에서 손에 꼽히는 이 대회에서 입상한다는 것은 전국에서 최고라는 의미와 같다. 우리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명한승 학생은 “반 수 이상의 참가팀이 탈락할 정도로 어려운 코스였지만 완주를 해냈고 기록도 좋아 은상을 수상할 수 있었다”라면서 기능을 보강해 내년 대회에 다시 도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하, 장은진 URP 과제 선정

박정하(생명분자공학부 3), 장은진(생명분자공학부 3) 학생이 학부생연구프로그램(URP: Undergraduate Research Program) 과제에 선정되었다. 이들은 황희진(대학원 분자과학기술학과 석사과정) 씨와 김두현(생명분자공학부) 교수의 지도로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내년 2월까지 구조생화학및분자면역학연구실에서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URP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올해 처음 도입한 대학단계 과학영재프로그램으로 올해만 연구비로 15억 원이 지원되며 국내대학 이공계열 학부생이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와 팀을 이뤄 관심분야 주제를 정해 과제를 신청하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전반기에는 김재현(자연과학부 1), 박상현(자연과학부 1) 학생이 장기과제로 선정되어 연구 중이다.

우현재, 핀란드 CIMO 장학생 선발

우현재(대학원 전자공학과 석박사통합과정 4학기) 학생이 핀란드 정부 교육기관인 CIMO(The Centre for International Mobility)에서 지원하는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9월부터 2010년 5월까지 9개월간 핀란드의 요엔수대학(University of Joensuu)에서 석사 과정을 수학하며 매달 1천2백유로(우리 돈으로 약 2백만 원)를 지원받는다. 외국정부초청장학생은 대학과 교육과학기술부산하의 국립국제교육원을 통해 학생을 각 정부에 추천하면 각 정부에서 검토 후 선발된다. 2008년에는 러시아 등 약 25건의 외국정부 초청장학 선발 건이 진행되었고, 18개 국가에 총 246명이 파견되어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다. 전자공학부의 멀티미디어네트워킹연구실은 요엔수대학에 매 학기 한 명씩 학생을 파견하고 있으며 국비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학비를 지원받는 것은 우현재 학생이 처음이다. 국비 장학생 선발교류국가와 자세한 사항은 국립국제교육원(www.nied.go.kr)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차세대게임개발인력양성 기관 선정

우리학교가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에서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차세대 게임 개발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우리학교를 포함해 10개 기관이 선정되었으며 교수 인원에 대한 교육 및 교재와 운영 경비 등을 지원받아 내년 2월까지 500여 명의 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우리학교는 2011년까지 미래 게임 플랫폼으로 각광 받고 있는 애플 아이폰(iPhone), 마이크로소프트 XNA framwork에서 게임 개발이 가능한 인력을 매년 50여 명씩 교육할 예정이다. 사업진행을 맡은 오규환(미디어학부) 교수는 “우리학교는 교육 커리큘럼의 우수성과 멘토링 등 산학 협력 프로그램을 교육 과정에 포함하여 실무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면서 “정부로부터 매년 3천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 데 지원금의 규모보다는 이 사업을 통해 정부에서 앞으로 추가로 진행할 게임 인력 양성 관련 사업에서 미디어학부가 유리한 위치를 가지게 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민병현 교수 연구팀, 골관절염 특화 치료센터 선정

민병현(대학원 분자기술학과 및 의학부, 병원 세포치료센터장) 교수 연구팀이 보건복지가족부 병원특성화 연구센터 사업에서 ‘골관절염 특화 치료센터’로 선정되었다. 민 교수 연구팀은 앞으로 골관절염 특화 치료센터로서 5년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50억 원, 수원시에서 20억 원, 학교에서 10억 원 등 총 8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민 교수 연구팀은 환자의 혈액이나 소변 등에서 극미량의 물질을 검출하는 진단기를 개발하고 관절의 연골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MRI 영상분석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연골을 근본적으로 재생하는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 세포이식술과 인공연골 제작을 연구하게 된다. 골관절염의 표준 치료법 개발은 전 세계적으로도 처음 시행되는 일로 주목받고 있다.



로스쿨, 수원지방법원과 학술 및 실무교류 협약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수원지방법원과 우수한 법률가 양성과 법률문화의 발전을 위한 '학술 및 실무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우리 로스쿨 학생들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실무수습과 사회봉사를 하게 되며 최신 판례 자료 수집, 재판 견학, 현직 법관의 실무관련 특강 등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양 기관은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주최하거나 학술세미나, 판례연구회, 모의재판 등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에 합의했다. 이재홍 수원지방법원장은 "부속병원, 인터넷 등 오래전부터 산학협력이 이루어진 의료계처럼 법조계도 학계와의 활발한 교류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문호 총장도 "지리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가까운 로스쿨과 법원인 만큼 내실 있는 학문적, 실무적 교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계 3대 인명사전에 5명의 교수 등재

세계적 인명사전에 아주대 교수들이 대거 등재되었다. 홍민성(기계공학부), 박태원(기계공학부), 김문석(응용화학생명공학부), 성민제(경영학부), 노병희(정보및컴퓨터공학부) 교수 등 5명이 그 주인공이다. 홍민성 교수와 박태원 교수, 김문석 교수는 '마르퀴스 사에서 발간하는 '마르퀴스 후즈 후' 2010판에 등재가 확정되었고, 성민제 교수와 노병희 교수는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에서 발간하는 인명사전에 등재된다. 성 교수는 2009년 세계 100대 교육자 (Top 100 Educators, 2009)에 선정되었으며 노병희 교수는 2009년 세계 100대 공학자 (Top 100 Engineers, 2009)에 선정되었다.

정하림 외 대한민국 디자인 전람회 입선

미디어학부 04학번 정하림, 김경진, 김진영 학생의 작품이 '제44회 대한민국 디자인 전람회'에서 입선했다. 우리나라 대표의 디자인 대회인 이 대회는 제품디자인, 멀티미디어·콘텐츠 등의 7개 부문으로 나뉘어, 자격 기준 없이 출품하여 경쟁한다. 총 2천 409 작품이 출품되어, 수상 70작, 특선 231작, 입선 403작으로 총 704 작품이 선정된 이번 대회에서 미디어학부 수상작인 'What women think'는 지난 해 졸업 작품으로 제작했던 것으로, 이번 대회의 멀티미디어·콘텐츠 부문에 출품한 것이다. 명령어 없이 마우스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GUI(Graphical user interface)형식을 디자인에 적용하여, 사용자가 화면상의 물체를 클릭할 경우 질문과 질문에 대한 답을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여성의 심리나 사고방식을 간접 체험하면서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스토리텔링, 플래시게임, 영상 등의 방식을 함께 사용한 작품이다. 정하림 학생은 "졸업작품의 객관적 평가를 받고, 대학생으로서 마지막으로 가치 있는 도전을 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입학사정관제 계속지원대학 선정

우리학교가 입학사정관제 계속지원대학으로 선정되었다.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학교육협의회는 입학사정관제 지원대학 40개를 선정하였고, 지난 1년간 사업실적을 평가해 2곳을 계속지원대학에서 제외시키고 새로 9개 대학을 선정하였다. 이번 선정으로 전임 입학사정관 수는 40개 대학 203명에서 47개 대학 36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입학사정관이 참여하는 전형의 선발인원도 4,555명에서 2만695명으로 늘어난다. 우리학교는 지난해 입학사정관 5명을 임용하였고, 2010학년도부터 입학사정관전형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6월 대학 최초로 고3 수험생 60명을 선발해 '미리 가보는 입학사정관전형 체험캠프'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윤경, 나메카타시로 행정인턴십 떠나

이윤경(사회과학부 4) 학생은 8월 1일부터 6개월간 일본 공무원 신분이었다. 아주대학교가 일본의 이바라키(茨城)현 나메가타(行方)시와 인턴십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이윤경 학생은 나메가타 현으로부터 월 12만 엔(우리돈으로 160만 원)의 연수지원금과 숙소를 지원받으며 사회과학부의 '공공인턴십 과목'을 이수(3학점)하게 된다. "단순히 업무보조가 아니라 관공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제 기획, 진행해야하니 긴장되지만 한편 정말 설렙니다. 첫 파견자인 만큼 저 스스로가 한국 대학생을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저는 혼자 가지만 제가 잘 하고 돌아오면 나메가타시에서 몇 명 더 보내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라며 이윤경 학생은 당찬 각오를 밝혔다. 우리나라 대학이 일본의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인턴을 공공기관에 파견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박성빈(사회과학부) 교수는 "외국의 기업에 인턴으로 파견되는 사례는 많지만 외국의 공공기관에 파견된 경우는 처음으로 알고 있다. 외국문화를 체험하는데 중점을 두는 기존의 프로그램에서 한 발 나아가 외국 공공기관에서 실제 공무원처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라면서 "나메가타시는 이바라키 공항이 조만간 완공될 예정으로 관광산업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어 외국인 인턴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아주대 공과대학 예절캠페인

기억하지 못할 거란 생각에 모른 척 지나쳤던 교수님께 공손히 인사를 건넵니다. 마주친 두 눈을 통해, 공손히 모아진 두 손을 통해 따뜻한 마음이 전해집니다. 나 하나쯤은 팬찮을 거란 생각에 무심코 꺼내든 담배, 다음에 이 공간을 이용할 친구들 얼굴이 떠올라 도로 집어넣습니다. 담배 연기 대신 다음 사람에게 대한 배려가 피어오릅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생활하는 캠퍼스에서부터 모든 질서와 예절이 시작됩니다.



올바른 예절문화 정착과 쾌적한 교내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공과대학 학생회와 각 학부 대표들의 자발적으로 참여한 예절캠페인이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1주일간 진행되었다. 건물 입구에서의 금연,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지 않기, 교수님에게 인사하기라는 세 가지 주제로 등·하교 시간 및 점심 식사시간에 맞춰 예절캠페인 안내문을 나눠주며 학생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또한 각 건물 입구마다 스탠딩 배너와 포스터를 제작해 부착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웃어른들에게 인사를 잘 하자
교수님께 인사를 건네는 나는 예절바른 아주인



건물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자
당신 뒤의 사람은 비흡연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자
내가 먼저 실천하는 깨끗한 캠퍼스 만들기